

효령노인타운,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행사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 산하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지난 4일 지역 독거노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제공>

장성우체육 봉사단, 장성상록원에 생필품



장성우체육(국장 백태규) 행복나눔봉사단(단장 정은기)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장성상록원을 방문해 다과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광주북부소방서 말바우시장서 소방 홍보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최근 3일간 전통시장 불내음 축제가 열리는 말바우시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사용법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장애인공단 전남직업개발원, 학생초청 행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덕운)은 최근 영암 특수학교 '소림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직업훈련시설을 탐방하고 합평나비축제를 방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공>

“아버지 건강 위해서라면 간 이식 기꺼이”

간경화·간암 투병 아버지에 간 기증 20대 조성연씨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20대 청년이 있다.

조성연(25)씨는 간경화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조남석(56)씨에게 간을 기증했다. 조씨 부자는 지난달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조철균·고양석 간담췌외과 교수의 집도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들한테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아들에게 너무도 크나 큰 선물을 받았네요.”(조남석씨)

조남석씨가 간암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이다. 평소 ‘건강체질’이라고 자부했던 그는 갑작스레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다.

단순 복통인 줄 알았지만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간경화와 간암이 진행돼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 최선의 조치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이었다. 이들은 급히 화순전남대병원으로 향했다.

다급한 문제는 이식에 적합한 간 기증자를 찾는 일이었다. 성연씨와 학사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그의 형 성운(28)씨 형제 모두 선뜻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사전검사를 통해 아버지와 혈액형이 같은 성연씨가 수술 대에 오르게 됐다.

수술 날짜가 잡히자 광주 하남공단의 한 임

부친 “아들로부터 어버이날 큰 선물”

간 이식 수술 위해 다니던 회사 사직

화순전남대병원서 치료비 전액 지원

체에서 근무하던 성연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 수술부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수술 이후 무리하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탓이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루하루 활력을 되찾아가는 아버지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술 후 회복속도가 빨라 먼저 퇴원한 성연씨는 건강을 회복하는 부친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마음 한 켠에는 걱정도 있다.

평동공단에서 조그만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입원과 자신의 퇴사로 치료비는 물론, 가계형편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조씨 부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준 큰 도움이 됐으나, 여전히 압박감이 크다는 게 그의 실정이다.



조성연씨 가족이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과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양석 교수, 조남석씨와 조씨 부인, 조성연, 조철균 교수.

“입원중인 아버지, 하루종일 간병에 매달리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 하루빨리 몸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큼니다. 앞으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최우선이겠지요?” 조성연씨는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되찾

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며 “도움을 준 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어린이들에 함정 공개하고 고속단정 승선 체험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목포 삼학도 전동부두에서 3000t급 경비함 ‘태평양 9호’ 함정공개 행사를 열었다. 목포해경은 이날 방문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타실 등 경비함정을 공개하고 주요 장비와 불법외국어선 단속 진압 장비 등을 소개했다. 해양환경 사진전과 기념촬영 이벤트도

진행했다. 경비함정 갑판에 착륙한 ‘카모프 헬기’ 조종사 체험과 고속단정에 승선해 바다를 달리는 체험행사는 어린이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안두술 서장은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바다와 함께 꿈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며 “다채로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어린이날 학생들과 점심식사·영화관람 한 선생님들

광주 하남중앙초 2년째 운영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교장 박상석)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운영했다. <사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집에서 어린이날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54명의 학생과 안유정 교감, 최준호·김성욱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활동과 점심식사, 영화관람,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경근 광주소방학교 소방위 ‘교육훈련 대회’ 우수상

광주소방학교 오경근(47) 지방소방위가 최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22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에서 강의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소방교육 훈련기관 소속 교수의 교육훈련기법 개발과 상호교류의 장으로, 전국 시·도 소방학교에서 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오 소방위는 ‘배우고, 찾고, 사용하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의 전개방법과 강의 기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인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오는 6월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제35회 공공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기록 재탈환 나선 산악인 사망

세계 최고봉, 최고령 등정 목표를 경신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스타 산악인이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다.

7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올해 86세인 네팔 산악인 민바하두르 세르찬은 전날 오후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베이스캠프에 머물던 중에 숨졌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세르찬은 지난 3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겠다고 선언했다. 최고령 등정 기록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세르찬은 2008년 5월 76세 나이로 세계 최고봉인 8,848m 에베레스트에 올라 최고령 등정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일본 산악인 미우라 유이치로(三浦雄一郎)가 80세의 나이로 2013년 5월 등정에 성공하면서 기록을 빼앗겼다. 세르찬은 1931년 네팔 미아그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73세이던 2003년에 이미 에베레스트에 오른 적이 있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 ▲김종환·유수옥씨 아들 주영군 배정수(전 나주시 지적계장)·나연님씨 딸 지애양=13일(토) 낮 1시 광주시 서구 NS웨딩컨벤션(구 상록웨딩홀) 3층 베라체홀, 010-8594-7012.
▲김은수(광주시교육청 장학관)·김서희(광주체육중 교사)씨 아들 용현군 이정기(금호타이어)·백정남(학원 강사)씨 딸 명효양=1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라뷰웨딩홀 3층 더하우스홀.
▲박상철(옥과농협 조합장)·이명옥씨 장남 현일군 이병제(전 국립소록도병원 근무)·명은자(국립소록도병원 근무)씨 장녀 수진양=20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등문회

- ▲광주 송일중·고 총동창회(회장 박철홍) 송일동문의 날=13일(토) 오전 10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문의 062-651-9400.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기쁨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실용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형).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

- 4617-6078.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생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자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한문·예

- 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화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부음

- ▲이자순씨 별세 송산석·창열·창호·창민·영미씨 모친상 이만주·김정실씨 시모상=발인 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전영수씨 별세 현준·수영씨 부친상=발인 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Mok) for a deceased person. It includes details for two services: 401st Mok for Mr. Heo In-gyu (86 years old) and 402nd Mok for Mr. Heo Gyeon-sun (72 years old). It lists family members, dates, and times for the servic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 Myeongho Memorial Hall (062-227-4000).